

지역 낙후도 유형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과 이동 요인: 충북 시·군을 사례로¹⁾

The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and Immigration Factors Based on the Regional Classification using Degree of Regional Retardness : Case of Local Governments in Chungbuk Province

채성주 Chae Sungju²⁾, 배민기 Bae Minki³⁾, 백기영 Baek Kiyoung⁴⁾

Abstract

Population outflow resulted in a human resources shortage and a decrease in consumption, and finally it has been intensified the Inter-regional development gap. However, the research analysing migration characteristics and immigration factors based on regional types is not enough. In this research, the regional types were established using regional statistics. And then, personal characteristics, origin of migration and immigration factors by regional types were studied. The twelve areas in Chungcheongbuk-do were classified four types by the multidimensional scaling. In addition, the extraction data from Statistics Korea's Micro Data Service System was utilized for analysing of migration characteristics and immigration factors by regional types. As a result, immigration ratio of 20-30 age group was high in the developed area, and elderly group over fifty was high in the declined areas. In the case of developed areas and developing areas, immigration ratio from inside of a province was high, but immigration ratio was low from capital area. Also, in the developed areas and developing areas, the ratio of immigration by job was higher than the province average. In the declined areas, the immigration ratio from metropolitan cities was hig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useful inform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Keywords: Regional Retardness, Regional Classification, Migration, Immigration Factors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규모가 해당 지역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교통, 기

반시설 등에서 과밀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의해 과소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지역 발전적 측면에서 산업 인력 및 소비 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쇠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임동일, 2011). 이러한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는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자연적 요인과

1) 본 논문은 충북발전연구원 2013년도 연구사업(도정기획과제)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2)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제1저자) | Research Fellow, Chungbuk Research Institute | Primary Author | csj@cri.re.kr

3)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Research Fellow, Chungbuk Research Institute | mkbac@cri.re.kr

4) 영동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Prof., Dept. of Urban Administration, Young Dong Univ. | kybaek@yd.ac.kr

전입이나 전출과 같은 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다.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의 인구이동은 지역의 역동성과 존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외희, 2000). 따라서 인구이동의 원인이나 이동 방향 등 지역의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 지방중소도시와 대도시와의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생산시설 및 유관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전입인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채성주·조택희, 2013).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와 충북, 충남, 경남의 시(市) 지역은 인구 유입이 인구 유출을 초과하고 있으나, 전북, 전남, 경북, 강원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인구 유입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권상철, 2005). 이러한 지역 간 인구이동은 경제적인 요인, 삶의 질에 관한 요인, 지방재정 요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상근, 2005). 다양한 원인에 의한 일정한 지역으로의 사회적 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이동은 심각한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창출하고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별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인구가 이동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또한 그 요인 간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른 인구이동 요인이 무엇이고 그 차별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고찰하는 것은 인구이동 연구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 분

류와 그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도시와 농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시·군(市郡)의 낙후도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로 개인 속성, 인구이동 기원지, 이동 사유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자료의 수집 및 분류방법과 분석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충북지역 12개 시·군을 지역낙후도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유형을 정립하고 그 특성을 고찰한다. 4장에서는 시·군 낙후도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과 인구이동 사유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한다.

2. 자료 구축 및 분석 방법

본 논문은 통계청 MDSS에서 텍스트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마이크로데이터(통계원시자료)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용한다. 첫째, MDSS에서 2008년의 인구부문-국내 인구이동 통계-인구 관련 연간자료를 추출한다. 2008년 국내 인구이동 총량은 662만 8,314건이다. 본 논문에서 2008년의 인구이동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충북 주민등록 인구는 2003년 148만 9,635명에서 2012년 156만 5,628명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로 특별·광역시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충남(0.65%), 경남(0.62%)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충북 주민등록인구는 2007년 이후 15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08년에는 저출산에 따른 신생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1만 3,000명이 증가하는 등 2008년은 충북 인구 성장의 전환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시점을 2008년으로 설정하였다.⁵⁾

둘째, 추출된 인구 관련 연간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재추출한다. 이때 데이터 추출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660만여 건이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SPSS 프로그램(Ver. 17.0)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 12개 시·군이기에 때문에 전입행정 시·도를 충청북도로 하고, 전입행정 시·군·구를 청주·충주·제천 등 12개 시·군으로 설정하여 추출하였다. 셋째, 인구이동 데이터는 지역 내 인구이동(내부 이동)과 지역 간 인구이동(외부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유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인구이동(내부 이동)은 분석에서 제외한다.⁶⁾ MDSS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의 기초 자료는 주민등록 시 작성하는 전입신고서다. 전입지(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입년월일, 전입구분(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전출지(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출구분(세대전부, 세대 일부(세대주 포함), 세대 일부(세대주 없이), 이동 사유(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전입자 세대주 여부, 전입자 생년월일, 전입자 성별 등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시·군 낙후도 유형별로 인구이동의 개인 속성, 기원지, 이동 사유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입지(시·군·구), 전입자 생년월일 및 성별, 전출지를 분석에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지인 충청북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7개의 낙후지역 선정지표⁷⁾에 해당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통해 시·군을 유형화한다. 또한 거리행렬 및 요인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여 도출된 시·군 유형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거리행렬은 두 변수사이의 거리를 행렬로 표시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시·군별 특징의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한다. 2차원상에 표시된 시·군별 포지셔닝을 설명하기 위해 2개의 요인수를 가지는 요인분석을 수행한 후 적재된 요인값을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한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며, 각 지표들 간에 내재된 관계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각회전인 Varimax를 사용한다. 다차원척도법은 Shepard와 Kruskal에 의해 개발된 기법으로 공간 내 거리에 의해 지표 간 관계의 강약을 나타내는 다변량해석법으로 대상 간의 복잡한 관계를 2차원 공간에서 단순한 구조로 나타내주는 분류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포지셔닝 맵은 SPSS의 ARSCA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본 논문은 지방중소도시 유형별로 인구이동의 개인속성, 인구이동 기원지, 이동 사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시·군 낙후도 유형별로 개인

5)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인구는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만 3,000명이 증가하였고, 2009~2013년까지 5년 간에는 4만 5,000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9,000명 정도 증가하였다.

6) 본 논문에서는 외부 이동을 기초자치단체 외부로부터의 전입, 내부 이동을 기초자치단체 내부에서 내부로의 이동으로 정의함. 예를 들면 서울, 용인, 충주, 보은에서 청주로의 전입은 외부 이동, 청주에서 청주로의 전입은 내부 이동이 됨.

7) 충청북도는 도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2007년에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7년에는 13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였고, 2012년부터는 7개의 지표(낙후지역 재정력 지수,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율, 인구 변화율, 노령화 지수, 도로포장률, 1인당 기초생활 수급자수, 1인당 의사수)로 지표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속성에는 차이 있는지, 둘째, 시·군·낙후도 유형별로 인구이동 기원지에는 차이가 있는지, 셋째, 시·군·낙후도 유형별로 인구이동 사유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개인 속성, 인구이동 기원지, 이동 사유는 명목척도인 범주형 데이터(categorical variable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검증(chi-square test)으로 특성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조사된 자료의 처리는 SPSS 프로그램(Ver. 17.0)을 이용한다.

II. 선행연구 진단

인구이동 원인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유경문(1991)은 1966~1985년까지 20년간의 인구이동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그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 예상 소득과 고용 기회, 쾌적도를, 정책적 요인으로 조세 부담과 정부지출 규모를, 기타 요인으로 교육 기회 및 주택 사정을 변수로 채택했다. 분석 결과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은 비경제적 요인인 교육 기회가 가장 큰 결정요인이며, 도시의 문화시설 차이에 따른 쾌적도의 차이가 인구이동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성태·장성호(1997)는 1970~1991년간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을 Todaro 모형과 Tiebou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기대 소득, 교육 기회, 공공재 혜택, 지방세, 거주비용, 삶의 쾌적도를 거시변수로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간 인구이동에는 두 지역 간의 기대 소득 차이와 도로나 교육 등의 공공재 공급 수준, 삶의 쾌적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밝혔다. 권상철(2003)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을 유입과 유출 인구로 구분하고 이동인구 유형별 속성을 비교했다. 독립변수로는 개인 속성, 경제활동, 종사자 지위, 교육 수준, 직종을 선택했다. 본 논문은 제주와 수도권 지역과의 인구이동이 증가하

며, 유출 인구는 고학력, 전문 직종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취업기회가 유출의 주요 요인이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교육기회 또한 인구 유출의 원인을 밝혔다. 김태일(2004)은 1997년 인구이동 특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주거이동에 관하여 주거이동의 주요 요인, 이동에 따른 주거 규모, 거주인원 수, 주택 형태, 소유 형태 등의 주거행태의 변화와 장래 거주지 이동 요인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가족요인은 '가족을 따라서 이동', '결혼'이 주요 이유였고, 주택 요인으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큰 평수로 늘리기 위해', '집세 때문에', '거주 규모를 늘리기 위해' 거주지를 이동한다고 주장했다. 하상근(2005)은 경상남도의 2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로의 총전입(총유입자수)과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총전출(총유출자수)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이동 요인(독립변수)으로는 경제적 요인, 사회교육적 요인, 중앙정부 정책적 요인, 지방정부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총전입(유입) 인구결정 요인 지역인구와 공무원수 및 도로포장률 등으로 나타났고, 총전출(유출) 인구의 결정요인 지역인구와 사업투자비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간 인구이동에 있어 지역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인구유입(전입)뿐만 아니라 유출(전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의 인구이동이 과거 이촌향도의 이동 경향과는 달리 인구가 많고 도시화율이 높은 도시 간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권기철(2006)은 제조업의 고용상황 변화가 부산과 경남권 간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두 지역 간의 인구이동수에 대한 독립변수로 이동 목적지의 제조업 종사자수, 고용률, 1인당 GRDP를 선정했다. 1970~2003년간 두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제조업 종사자수의 변동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박추환·김명수(2006)는 도시와 농촌 간의 임금 격차가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표 1_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자	분석 대상	주요 내용 및 분석방법(지표)
김성태·장성호 (1997)	전국	인구결정 요인 Todaro모형과 Tiebout분석모형
권상철(2003)	제주도	이동인구 유형별 속성비교
김태일(2004)	제주도	거주지 이동 요인 분석
하상근(2005)	경남	다중회귀분석, 경제/교육/인구/ 재정/공공서비스/국가정책
권기철(2006)	부산 경남권	제조업 고용변화분석
박추환·김명수 (2006)	전국	도시농촌 임금격차가 인구이동 유발 요인 분석
홍성호 외(2010)	충청권 3개 시·도	인구이동 동태성 분석, MDSS 자료(주민등록전입신고서)
임동일(2011)	강원도 3대 도시	인구이동 영향 요인 분석 패널모형

가에 관하여 분석했다. 1971~2000년의 농촌과 도시 지역 간 인구이동 관련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도시의 임금이 도시와 농촌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도시 제조업 부문의 실업률을 증가하는 원인을 밝혔다. 홍성호 외(2010)는 충청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충청권과 비충청권 기초자치단체 사이 인구이동의 동태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과 2008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집계·작성되는 MDSS 인구이동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권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및 유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수원으로부터의 유입 및 유출이 충청권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서울의 2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충청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전안을 위시로 한 충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임동일(2011)은 강원도를 대상으로 1999~2008년의 인구이동 추이와 함께 인

구이동의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통계연보에서 확보한 인구이동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고용기회, 교육기회, 공공재 수혜, 도시화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도 3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고용 기회와 교육 기회는 인구이동에 유의한 것으로 판별되었고, 도시화의 정도가 인구유입에 영향이 있다는 것과, 도로 포장률이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인구유입에 부의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위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인구이동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종사자수, 임금, 고용률 등의 경제적 요인, 교육기회, 공공재 수준, 삶의 쾌적도와 같은 사회적 요인, 교육수준, 직종 등의 개인 속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분석이 실시되었다. 즉, 대부분의 연구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연구다. 또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인구이동수는 인구이동특별조사 원자료나 통계연보를 통해서 구하고 있다. 홍성호 외(2010)와 임동일(2011)의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가 분석의 최소 단위를 시·도로 설정하고 있다.⁸⁾ 따라서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인구이동의 최종 안착지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별 특성이 상이한 기초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묶어 분석하다 보면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다양한 현상을 살펴볼 수 없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제반 현상은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의 공통적 특성에 따라 몇 개의

8) 이러한 연구 경향은 주로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에 기인한다. 통계청의 표본조사를 제외하면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맞도록 데이터를 가공하여 기원지와 목적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음. 그러나 2008년 통계청에서 MDSS를 운영하면서부터 기초자치단체단위의 기원지·목적지분석이 가능해졌음. 또한 연간 인구이동수의 전수(全數)를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동 사유, 전입유형, 전입자 성(性)·연령, 가족수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표 2_지역 분류를 위해 선정된 지표

구분	인구변화율 1990~2008 (%)	노령화지수 (%)	도로포장률 (%)	재정력지수 (%)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율 (%)	1인당 의사수 (명)	1인당 기초생활 수급자수 (명)
청주시	1.44	38.3	66.5	0.599	30.6	0.009	0.027
충주시	0.38	81.9	74.4	0.274	28.6	0.007	0.037
제천시	-0.11	87.5	74.6	0.221	28.7	0.007	0.052
청원군	1.53	80.9	79.8	0.428	38.1	0.003	0.030
괴산군	-1.96	239.2	74.2	0.099	32.2	0.002	0.075
음성군	1.28	89.4	80.4	0.34	41.8	0.007	0.053
진천군	1.42	86.1	77.5	0.337	54.6	0.005	0.033
증평군	-1.29	67.9	71.0	0.219	28.3	0.005	0.036
단양군	-2.40	163	84.9	0.117	34.6	0.003	0.060
보은군	-2.16	223	74.2	0.109	27.9	0.003	0.054
옥천군	-1.38	147.8	64.6	0.142	30.0	0.006	0.055
영동군	-2.30	185.1	76.9	0.113	23.3	0.004	0.058
평균	-0.46	124.2	74.92	0.250	33.23	0.005	0.048
표준편차	1.62	65.35	5.71	0.154	8.339	0.002	0.015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는 지역의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고, 인구이동 전수(全數)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통계청의 MDSS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인구이동의 다양한 특성과 직접적 이동 사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유형을 정립하고 유형별 인구이동 요인을 분석하여 그 차이의 수준과 의미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III. 시·군 낙후도 유형의 정립 및 현황 진단

1. 시·군 낙후도 유형의 정립

본 논문은 지역 특성별로 인구이동의 개별 속성[연령, 성(性), 기원지, 이동사유]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다. 따라서 시·군 낙후도 유형 분

류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찰하고 인구이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역분석이나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학자가 지역 분류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laassen은 동질지역을 구분하면서 정태적 기준인 지역소득 수준과 동태적 기준인 성장률을 국가 평균과 비교해 번영지역, 성장 중인 저발전지역, 잠재적 저발전지역, 저발전지역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김용웅 외, 2009). 본 논문은 Klaassen의 4가지 지역 분류의 관점에 기초하되, 지역 유형의 설정은 이미 충북도에서 낙후지역 선정지표로 채택하여 활용한다. 지표별 시·군 특징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노령화지수, 재정력지수, 의사수, 기초생활수급자수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단양군은 인구변화율, 괴산군은 노령화지수와 의사수 및 기초생활수급자수, 영동군은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율, 옥천군은 도로포장률 등에서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3_ 연구대상지별 유사성 거리행렬

구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	0,000											
충주시	1,681	0,000										
제천시	2,091	0,645	0,000									
청원군	2,270	1,556	1,869	0,000								
괴산군	3,950	2,656	2,246	2,932	0,000							
음성군	2,232	1,320	1,259	1,461	2,679	0,000						
진천군	2,497	1,943	2,134	1,322	3,135	1,325	0,000					
증평군	2,114	0,897	1,005	1,783	2,378	1,881	2,197	0,000				
단양군	3,734	2,244	1,926	2,342	1,439	2,111	2,605	2,072	0,000			
보은군	3,442	2,071	1,804	2,519	0,928	2,454	2,861	1,730	1,305	0,000		
옥천군	2,582	1,582	1,291	2,601	1,846	2,222	2,671	1,274	2,255	1,454	0,000	
영동군	3,353	1,893	1,543	2,536	1,190	2,331	2,970	1,619	1,167	0,618	1,503	0,000

2. 시·군 낙후도 유형화 결과

시·군 낙후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법으로 분석한 결과, 다차원 공간의 적합도를 나타내주는 Kruskal's stress 값은 0.138로 나타났으며, R-Square는 0.938을 나타내 도출된 포지셔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포지셔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사성 거리행렬 및 2개의 요인수를 갖는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거리행렬 도출 결과, 충주시와 제천시·증평군, 괴산군과 보은군, 보은군 영동군이 유사한 성격이 강한 시·군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청주시가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을 비롯해 여타 시·군들과의 상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도출된 거리행렬을 기준으로 12개 시·군 간 포지

셔닝 맵을 작성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포지셔닝 맵의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낙후도가 낮은 시·군, 왼쪽으로 갈수록 낙후도가 높은 시·군이라고 할 수 있다. 지표의 특성에 따라 시·군별 유형을 분류한 결과, 발전지역(청주시), 발전정체지역(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증평군), 발달도약지역(음성군, 진천군, 청원군), 쇠퇴지역(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구

그림 1_ 근접성 행렬 포지셔닝 맵 기반 유형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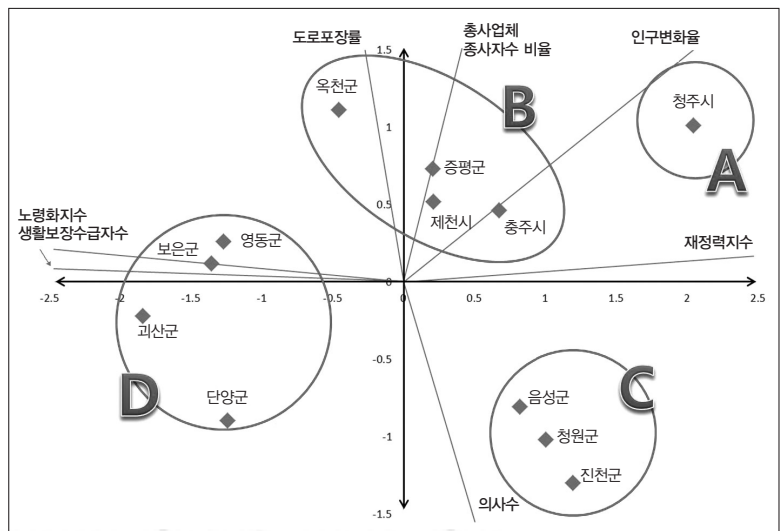


표 4_시·군 낙후도 유형별 지표

구분	인구변화율 1990~2008 (%)	노령화지수 (%)	도로포장률 (%)	재정력지수 (%)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율 (%)	1인당 의사수 (명)	1인당 기초생활 수급자수 (명)
발전지역	1.44	38.31	66.5	0.599	30.6	0.009	0.027
발전정체지역	-0.16	89.59	72.8	0.214	28.82	0.007	0.044
발전도약지역	1.43	84.44	79.4	0.368	42.63	0.004	0.038
쇠퇴지역	-2.21	205.56	77.2	0.110	28.83	0.003	0.062

분할 수 있었다.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전지역(청주시)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령화지수도 가장 낮으며, 재정력지수는 가장 높다. 또한, 1인당 의사수가 가장 많고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도내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발전정체지역(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증평군)은 발전지역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지수가 높고 재정력지수가 낮았으나 도로포장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발전도약지역(청원군, 진천군, 음성군)은 발전지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령화지수와 기초생활수급자수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력지수도 비교적 높았으며 특히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지역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지수는 발전지역의 약 6배에 달하고 재정력지수는 0.110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의사수는 발전지역의 1/3에 불과하고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쇠퇴 상태에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IV. 시·군 낙후도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 분석

1. 충북 인구이동 현황

2008년에 충청북도를 전입대상으로 한 인구이동건수는 19만 4,085건으로, 이중 도내 내부 이동은 13만 3,017건으로 총 이동건수의 68.5%를 차지하고, 도외 지역으로부터의 외부 이동은 6만 1,068건(31.5%)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단위는 기초자치단체이므로 도내 내부 이동건수를 시·군 간 이동과 시·군내 이동으로 나누어서 분석에 사용할 인구이동건수를 재분류하였다. 2008년 충북도 내 시·군 간 이동은 3만 2,438건, 시·군내 이동은 10만 0,579건이다. 따라

표 5_충북 시·군별 인구이동(2008년)

구분	내부 이동		외부 이동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청주시	52,096	61.9	32,001	38.1	84,097	100.0
충주시	14,357	58.7	10,113	41.3	24,470	100.0
제천시	8,322	53.7	7,179	46.3	15,501	100.0
청원군	6,054	27.0	16,382	73.0	22,436	100.0
보은군	1,688	43.1	2,225	56.9	3,913	100.0
옥천군	2,143	40.6	3,132	59.4	5,275	100.0
영동군	2,176	38.4	3,492	61.6	5,668	100.0
증평군	2,271	44.4	2,841	55.6	5,112	100.0
진천군	3,454	43.8	4,429	56.2	7,883	100.0
괴산군	1,389	34.1	2,689	65.9	4,078	100.0
음성군	5,396	43.1	7,115	56.9	12,511	100.0
단양군	1,233	39.3	1,908	60.7	3,141	100.0

표 6_충북지역 시·군별 외부인구 유입 사유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합계
빈도	51,868	14,318	12,053	3,007	176	1,586	10,498	93,506
비율	55.5%	15.3%	12.9%	3.2%	0.2%	1.7%	11.2%	100.0%

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인구이동건수는 도외지역으로부터의 외부 이동(6만 1,068건)과 도내 지자체 간 이동(3만 2,438건)을 합한 9만 3,506건이다. 시·군별 인구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내부 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주시로 61.9%이고, 다음으로 충주시 58.7%, 제천시 53.7%로 나타났다. 외부 이동 비율이 높은 지역은 청원군으로 73.0%, 다음으로 괴산군 65.9%, 영동군 61.6%의 순이다.

내부 이동과 외부 이동 비율을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주, 충주, 제천과 같은 시지역에서는 내부 이동 비율이 높고, 청원, 괴산, 영동과 같은 군지역에서는 외부 이동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2개 시·군별 외부 이동 9만 3,506건의 이동 사유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이동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직업으로 전체 외부 이동의 약 55.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가족 15.3%, 주택 12.9%의 순이다. 한편, 기타 사유가 1만 498건으로 전체 건수의 1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MDSS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 사유를 더욱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개인 속성 분석

시·군 낙후도 유형별 개인 속성의 특징을 살펴보

면, 청주가 속한 발전지역은 20대(33.7%)와 30대(25.9%)의 젊은 층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충주·제천·옥천·증평이 속한 발전정체지역은 20~30대 젊은 층의 전입 비율이 발전지역 다음으로 높은 51.6%에 달하였고, 특히 60대 이상의 비율도 13.4%로 높았다. 충북의 대표적 산업입지 집적지역⁹⁾인 청원·음성·진천이 속한 발전도약지역은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동·보은·괴산·단양이 속한 쇠퇴지역은 20~30대 젊은 층의 전입 비율이 가장 낮은(43.9%) 반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전입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판단되는데 남녀 성비도 가장 안정적이다.¹⁰⁾ 시·군 낙후도 유형별로 연령, 성별 등 개인 속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인구이동 기원지 분석

4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전입비율이 높은 기원지(시·도)는 충북도 내, 경기, 서울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공장이 다수 분포하는 등 제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한 발전도약지역의 경우에는 충북도 내부 이동 비율(41.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 비율

9) 충북 12개 시·군의 지난 10년간(2002~2011년) 제조업체수 변화율을 보면 청원 5.96%, 진천 2.96%, 음성 1.8%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10) 2012년 12월 현재 충북지역 귀농귀촌자수는 3,892명인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172명(30.1%), 60대 이상이 1,044명(26.8%)으로 나타났다.

표 7_시·군 낙후도 유형별 개인속성

구분	연령						성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여성
발전지역	1,957	10,795	8,281	5,461	2,613	2,894	17,779	14,222
	6.1%	33.7%	25.9%	17.1%	8.2%	9.0%	55.6%	44.4%
발전정체지역	1,517	6,544	5,456	4,065	2,556	3,127	13,072	10,193
	6.5%	28.1%	23.5%	17.5%	11.0%	13.4%	56.2%	43.8%
발전도약지역	1,460	6,865	7,467	5,763	3,177	3,194	16,468	11,458
	5.2%	24.6%	26.7%	20.6%	11.4%	11.4%	59.0%	41.0%
쇠퇴지역	855	2,489	2,039	1,728	1,391	1,812	5,625	4,689
	8.3%	24.1%	19.8%	16.8%	13.5%	17.6%	54.5%	45.5%
χ^2 검증	$\chi^2=1792.603$, 자유도=15, P=0.000(양측검정)							

표 8_시·군 낙후도 유형별 인구이동 기원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발전지역	3,667	527	475	954	274	2,186	243	5,122	759	11,956	2,770	688	437	1,118	678	147
	11.5%	1.6%	1.5%	3.0%	0.9%	6.8%	0.8%	16.0%	2.4%	37.4%	8.7%	2.1%	1.4%	3.5%	2.1%	0.5%
발전정체지역	3,648	366	340	952	149	1,964	195	5,074	1,888	5,514	1,091	348	268	962	424	82
	15.7%	1.6%	1.5%	4.1%	0.6%	8.4%	0.8%	21.8%	8.1%	23.7%	4.7%	1.5%	1.2%	4.1%	1.8%	0.4%
발전도약지역	2,991	375	327	917	174	1,497	151	5,374	554	11,697	1,963	463	266	636	441	100
	10.7%	1.3%	1.2%	3.3%	0.6%	5.4%	0.5%	19.2%	2.0%	41.9%	7.0%	1.7%	1.0%	2.3%	1.6%	0.4%
쇠퇴지역	1,306	171	178	431	34	1,281	100	1,747	286	3,271	482	142	90	581	188	26
	12.7%	1.7%	1.7%	4.2%	0.3%	12.4%	1.0%	16.9%	2.8%	31.7%	4.7%	1.4%	0.9%	5.6%	1.8%	0.3%
χ^2 검증	$\chi^2=4976.456$, 자유도=45, P=0.000(양측검정)															

은 33.2%에 불과하였다. 또한, 도내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인 발전지역도 도내 타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이동 비율이 큰 반면, 외부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낮았고, 특히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30.5%로 가장 낮았다.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유형으로 분류되는 발전정체지역은 타 시·도로부터의 전입 비율이 76.3%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 비율도 4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도와 대전시로부터의 전입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리적 인접성(강원도-충주·제천, 대전시-옥천·증평)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쇠퇴지역의 기원지별 전입 특징으로는 7대 대도시로부터의 전입 비율(34.0%)이

가장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쇠퇴지역 다음으로 발전정체지역(32.7%), 발전지역(26.1%), 발전도약지역(23.0%)의 순으로 높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도시 거주 중장년층의 귀촌과 귀농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된다. 시·군 낙후도 유형별로 인구이동의 기원지(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시·군 낙후도 유형별 인구이동 사유 분석

앞서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북지역 시군별 외부인구 유입 사유는 직업(55.5%), 가족(15.3%), 주

표 9_시·군 낙후도 유형별 인구이동 사유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발전지역	20,498	2,941	4,345	851	53	107	3206
	64.1%	9.2%	13.6%	2.7%	0.2%	0.3%	10.0%
발전정체지역	17,027	4,080	3,296	600	63	473	2,958
	53.9%	22.4%	15.9%	4.8%	0.2%	2.7%	10.4%
발전도약지역	10,953	4,551	3,235	978	42	548	2,387
	66.7%	16.0%	12.9%	2.3%	0.2%	1.9%	10.5%
쇠퇴지역	3390	2746	1177	578	18	458	1947
	32.9%	26.6%	11.4%	5.6%	0.2%	4.4%	18.9%
χ^2 검증	$\chi^2=5882.164$, 자유도=18, P=0.000(양측검정)						

주택(12.9%), 교육(3.2%)의 순으로 높다. 모든 유형에서 인구이동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 요인이다. 발전지역은 직업 요인이 71.2%로 4개의 유형 중 직업 요인의 비율이 가장 높고 충북 평균(55.5%)을 상회하고 있다. 주택 요인 또한 15.1%를 차지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 가족 요인은 10.2%에 불과하여 도내 평균(15.3%)을 밑돌고 있다. 이는 청주의 양호한 고용 및 주거환경이 주변 지역의 고용 및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원인이 되어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된다.

발전정체지역에서 인구이동 사유로 직업(53.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15.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개의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인구이동사유 중 가족의 비율이 22.4%로 비교적 높는데, 발전정체지역의 4개 시·군은 충북 4개 권역¹¹⁾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충주, 제천, 증평)과 대도시 배후지역(옥천)으로 청주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주거환경이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도약지역은 직업에 의한 전입 비율이 66.7%

로 발전지역 다음으로 높고 충북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 직업수의 증가가 전입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주택, 교육 요인에 의한 인구이동은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12.9%와 2.3%에 불과해 다른 지역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쇠퇴

지역은 인구이동 사유 중 직업에 의한 전입 비율이 가장 낮은 40.5%에 불과하였으나 가족(32.8%), 교육(6.9%), 건강(5.5%)에 의한 인구이동 비율이 4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지역에 속하는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역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향후에 전입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휴양·요양을 위한 단지나 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시·군 낙후도 유형별로 인구이동 사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충북지역 시·군의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 유형을 정립하고 시·군 낙후도 유형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을 구분하였다. 그

11) 충청북도의 공간계획 중 최상위 계획인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는 도내 12개 지역을 청주권(청주, 청원),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 중부권(증평, 진천, 음성, 괴산),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으로 나누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결과 발전지역(청주), 발전정체지역(충주, 제천, 옥천, 증평), 발전도약지역(청원, 음성, 진천), 쇠퇴지역(보은, 영동, 괴산, 단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시·군 낙후도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 낙후도 유형별로 인구이동 대상자의 개인 속성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주가 속한 발전지역은 20~30대의 젊은 층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으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비율은 가장 낮았다. 충북의 대표적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동·보은·괴산·단양이 속한 쇠퇴지역은 20~30대 젊은 층의 전입 비율이 가장 낮지만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귀농·귀촌정책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는데 다른 유형에 비해 전입 인구의 남녀 성비도 안정적이었다. 둘째, 시·군 낙후도 유형별로 인구이동 기원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청원, 음성, 진천이 속한 발전도약지역은 충북도 내부로부터의 이동비율이 높았으나 수도권으로부터의 이동 비율은 낮았다. 또한, 도내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인 발전지역도 충북도 내 타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높았지만, 충북도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낮았다. 특히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발전지역이 4개 유형 중 가장 낮았다. 낙후지역인 쇠퇴지역은 대도시로부터의 전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시·군 낙후도 유형별로 인구이동 사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발전지역은 4개의 유형 중 직업 요인의 비율이 가장 높고 주택 요인의 비율도 높았으나 가족 요인은 10.2%에 불과하였다. 발전정체지역에서도 인구이동 사유로 직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개의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발전도약 지역은 직업에 의한 전입 비율이 발전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성장형으로 변화하는 지역의 성격적 직업이 인구이동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교육 요인에 의한 인구이동은 다른 지역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연구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데이터의 한계다. 7가지 전입 사유 중 기타 사유가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 MDSS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입 사유 항목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자료의 한계다. 본 논문에서는 충북도 인구 성장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특정 시점의 인구이동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인구이동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 유의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형별 인구 변화와 인구이동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계열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군 낙후도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의 사유분석뿐만 아니라 내부 이동과 외부 이동의 기원지와 목적지 간의 위상관계, 인구이동률 변화와 인구이동의 중심성 변화까지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이동과 공간변화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지역에서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기철, 2006. “부산광역권의 제조업 고용 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 및 인구이동의 균형화 효과”. 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pp97-123.

- 권상철, 2003.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유출: 제주지역 유출 유입 인구의 속성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pp59-73.
- _____. 2005.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 11, no. 6, pp571-584.
- 김성태·장성호, 1997.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 요인: 1970~1991”. 국제경제연구 제3권 제2호, pp175-197.
- 김용웅·차미숙·강현수, 2009. 新지역발전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 김태일, 2004. “제주지역의 주거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0권 제6호, pp22-33.
- 박추환·김명수, 2006. “지역 노동력 이동의 결정요인 연구”. 지역연구 제22권 제2호, pp97-113.
- 유경문, 1991.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경우(1966~1985)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39권 제1호, pp157-209.
- 이외희, 2000. “경기도의 인구이동요인에 관한 탐구”. 국토계획 제35권 제3호, pp67-76.
- 이학식·임지훈, 2013. SPSS20.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임동일, 2011. “강원도 3대 도시의 인구이동 결정요인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411-421.
- 채성주·조택희, 2013. “주거지 결정요인에 대한 거주민과 이주민의 비교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5권 제4호, pp2281-2296.
- 하상근, 2005. “지역 간 인구이동의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3호, pp309-332.
- 홍성호·이진희·채성주·이만형, 2010. “충청권과 비충청권 사이 인구이동의 특성 분석: 기초자치단체 간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4권 제2호, pp131-159.

- 논문 접수일: 2014. 4. 9
- 심사 시작일: 2014. 4. 21
- 심사 완료일: 2014. 5. 8

요약

주제어: 낙후, 지역유형, 인구이동, 이동 요인

인구의 지속적 유출은 산업 인력 및 소비 감소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지역 쇠퇴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 유형별로 인구이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인구가 이동하는가를 밝혀내는 실증분석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군의 낙후도에 따라 지역 유형을 정립하고 그 유형별로 개인 속성, 인구이동 기원지, 인구이동 사유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를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발전지역, 발전정체지역, 발전도약지역, 쇠퇴지역의

4개 유형으로 정립하였다. 연구 결과, 발전지역에서는 20~30대 젊은 층의 이동비율이 높고, 쇠퇴지역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이동비율이 높았다. 산업 활동이 활발한 발전지역과 발전도약지역은 도내 내부로부터의 이동 비율이 높은 반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이동 비율은 낮았다. 발전지역과 발전도약지역은 직업에 의한 이동 비율이 도내 평균을 상회하였다. 쇠퇴지역은 대도시로부터의 이동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시·군 낙후도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과 이동요인 분석 결과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